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5년 11월호

친애하고 존경하는 파트너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새롭게 투자자문업을 시작하게 된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두번째 레터를 올립니다.

지난 10월 3분기 레터에서 저희는 현재 한국 시장은 두개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책이요, 두번째는 기업실적 회복이라는 축이었죠.

레터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네요.

"사상 처음 지수가 3748포인트를 기록하며, 단숨에 300포인트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편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글을 쓰는 현재 한국 거래소 주가지수는, 지난 편지를 쓸 때보다 무려 400포인트가 더 오른 4,150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 지수기준 역사상 최고치인 4226.75포인트를 찍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의 상승은 그야말로 폭포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매트릭스가 첫 계약을 9월 26일에 시작을 하고, 곧 추석을 맞이한 후 10월 첫순이 돌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고객분들을 유치했는데, 그 사이 주가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이 매우 강할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후진적 시장의 사안들을 뒤집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에 빠르게 상승하게 되다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야속하게도 했습니다. 편입해야 하는 주식들이 빠르게 가격을 올리면서, 원하는 수준의 수량을 편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편입하는 기업들의 가치분석을 다시금 해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면서 운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조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많은 가격 매력을 가진 주식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수가 4200포인트 수준에 왔음에도 아직 한국은 그렇게 고평가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바닥권에서 자산운용 시장에 들어온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가끔 말씀을 올렸듯이 한국 자본시장의 흐름은 2000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후진적이 된 것을 자문업계에 들어오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5년 11월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증권업계와 운용업계가 시총기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운용업계의 사이즈가 증권업계의 1/100 수준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야말로 운용업계는 완전히 멸망해 있었던 것이지요~

멸망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느낌? 저는 요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4천 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고점 논란이 넘치고 있어서 저희와 계약하기를 조금은 두려워했던 파트너 고객분들의 진입 시점이 생각처럼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 길이 구만리 같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할 공간은 엄청나게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시던 분이 저희 회사 투자를 고민하던 게 기억이 나는 군요. 그분들은 저희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 투자를 포기하신 분들인데요, 아마도 자본시장에서 자산운용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영역인지라 그다지 큰 성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산운용업이라는 게 무슨 신흥 벤처, 그러니까 AI의 영역도 아니고 최첨단 IT분야도 아닙니다. 그러니 IT방면으로 투자를 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한 폭발적 성장을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역에 뛰어들어보니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모든 것이 불비한 영역이 21세기, 자본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가능한거였어?’ 라고 말이죠.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업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할 공간이 엄청나게 높고 넓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척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수 4200선 부근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끝없는 박스권에서 지겨움을 느끼며 떠올린 생각은, 3천대에 일정 수준 현금을 마련하고 4천이 넘어가면 많은 현금을 마련해야지였습니다만, 막상 들어와서 중심의 상황을 보니, 우리는 현재 자본시장 상승의 초입에 들어와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클이 오기까지 생각보다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레터
2025년 11월호

지난 10월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올해 그래왔듯,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여 주변에 저희 자문사를 권해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편하게 전파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고점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깨어있는 심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일부 포트 변동이 발생합니다.

부록으로 저희 모든 파트너 고객분들께 퇴직연금 MP의 변동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몇 년안에, 파티복 입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운용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창립회원과 초대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곧 마음의 표시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 장에 부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 11월호

시장 상황의 급변에 따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합니다.

수익률이 급등한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새롭게 자동차ETF 편입을 시작합니다.

향후 자동차는 비중이 더 커질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반도체는 꾸준히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심 좋을 거 같습니다.

<25년 10월 기준 제안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1. 증권금융 예금 30%
2. 반도체 25~35%
3. 증권 30~40%
4. 지주사 5~15%
5. 건설 5~10%
6. 펀드 비중 축소

<25년 11월 새로운 퇴직연금 제안>

1. 증권금융 예금 30%
2. 반도체 20~30%
3. 증권 30~40%
4. 지주사 5~15%
5. 자동차 5~15%
6. 건설 5~10%

‘당신의 백그라운드 매트릭스 투자자문’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준
김성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박상준 올림.